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2월16일 열려

본회는 지난 2월16일 제 14차 정기총회를 열어 '04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안), '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05년도 회비납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만원등 총 3천4백만원의 자산과 수입 3억5천1백만원, 지출 1억7천1백만원등 1억9천2백만원의 협회 수지총괄 금액을 심의하고 '04년도 수입 2억7천3백만원, 지출 1억5천9백만원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고품질 오리 생산 사육기반 확충과 오리고기 소비기반확대, 오리수급 및 가격안정, 지도교육 및 연구사업 확충, 협회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한 '05년도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위한 '05년도 사업예산은 수입 1억6천6백만원, 지출 3억원으로 짜여진 '05년도 수지예산안이 이견 없이 의결했다.

사업 불균형 예산에 따른 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05년 회비납부 기준안을 대폭 확대하여



부회장에서 새끼오리 판매실적에 따라 회비를 일괄 거출하여 납부키로 하고 납부금액은 새끼오리 판매수수당 부회장 5원, 사육계열유통업체 5원을 납부키로 했다. 논란이 된 수직계열화업체의 회비납부금액은 자체 생산된 새끼오리 5원과 입식에 따른 5원등 10원을 납부키로 의결됐다. 이로서 협회 회비납부 기준은 사육농가, 부회장은 새끼오리 입식 생산수수당 각 5원, 수직계열화업체 새끼오리 입식수수당 10원, 일반 유통업체는 종전과 같이 연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정기총회 부대행사에는 오리산업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농림부 조병임사무관의 정책특강이 1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전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과 협회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를 선정한 협회장 시상식과 농림부장관,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농림부 장관 표창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기여한 부산경남도지회 김성자 회원, 정책부분에는 이병선 부회분과 부회장, 전남도지사 표창에는 이덕행 전 전남도지회 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협회장 시상에는 조병임농림부사무관, 최석승나주시축산진흥사업소사무관, 박정열 음성군청 축산계장, 김성진 전남도청 축산과 주사보가 각각 공로상을 수상하였고 김현철 함평군청 축산계, 황성재 영암군청 축산계, 윤종옥 음성군 축산연합회장, 양성현 전남도지회 전지회장, 정현철 충북지회 전지회장에는 감사장을 수상했다. 또 전남도지회 손민

준, 박진근, 전북지회 황문주, 안길용, 경기북부지회 이석호, 충남지회 손윤권, 충북지회 김만섭회원 등이 우수 회원상을 수상했다.

【프랑스그리무드사 안 르포띠에】 한국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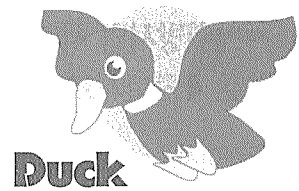
지난 2월16일 프랑스 그리머드사에 아시아 담당 매니저 yann lepottier가 한국내 그리무드사의 새 종자 및 자사 프로모션 등으로 협회와 각 부회장님들과에 만남을 가졌다.

이날 이루어진 그리무드사에 설명회는 지난 STAR 63과 관련해 아시아 시장에서 특히 한국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지못한데 관한 그리머드사에 새 품종 STAR 53을 선보여 한국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그리무드사와 협회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에 관한 계약관련 협의차 김규중 회장 외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날 계약 협의사항에 관한 서로에 입장차이로 인해 원만한 계약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당분간 협회와의 거래는 유보적인 전망이다.

【체리벨리사 기술지원 담당자】 부회장들 방문

체리벨리사에 기술담당자 데이빗 마틴이 한국내 체리베리수입부회장들의 기술지원자문을 위해 방문했다. 사육관련 기술전문가인 데이빗은 영국에 구디스 엔터프라이즈에 권영혜씨와 함께 2월21일부터 3/1일까지 10일 일정으로 전국에 부회장들을 방문하여 종오리 사육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자문을 추진했다.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이사 보석】 2일부터 업무복귀

지난 1일 광주지방법원이 나원주 대표의 보석을 결정했다.

나 대표는 이에따라 1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2일부터 나주 화인코리아 본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안이석 화인코리아 총무부장은 “대표이사의 업무복귀로 회사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라며 “먼저 농협 경매취하와 관련 채무재조정 협약을 추진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 대표의 보석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민들의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인기, 이낙연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화인코리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전남도민의 여론이 높다”며 “부득이하게 직원임금체불과 사육수수료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나 대표도 반성하는만큼 40여년의 노하우를 살려 지역민의 생활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며 지난달 31일 광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 나주시 3000여 당원도 이같은 진정서를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중앙당과 법원 등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농수축산신문2005-2-2)

[악취방지법 시행관련 협의회개최]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는 다음달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악취방지법 시행관련 협의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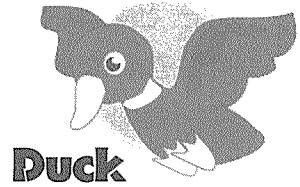
이날 협의회에서는 악취방지법령 안내와 함께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 3차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 개최]

새끼오리 기준가격이 큰폭으로 인상됐다. 본회 부화분과 소속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2월23일 협회사무실에서 각각 회의를 열어 새끼오리 기준시세를 상향 조정했다.

제2차 새끼오리 가격조절위원회는 종전 6백원으로 책정된 새끼오리 기준시세의 2백원 인상하여 8백원으로 조정하여 1월31일부터 적용키로 한데 이어 제3차 위원회는 2백원을 추가로 인정한 1천원 기준시세를 2월28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새끼오리 수급이 지난 11월,12월 폐기에 따라 크게 부족한데다 2월들어서는 산란율 부하율이 떨어지면서 새끼오리 생산이 크게 줄어들어 새끼오리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인상을 결정했다. 또한 육용오리 산지시세 및 도매유통 가격의 상승도 인상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이같이 결정했다.



[오리산물 기준가격 종전대로 시행] 단지 유통업계 새끼가격조절시 참여

오리산물의 기준시세를 결정하는 가격조절위원회가 육용오리 가격은 사육분과위원회에서, 새끼오리 가격은 부화분과위원회에서, 도매유통가격은 계열유통분과위원회에서 종전대로 기준시세를 정하기로 했다. 단지 새끼오리 기준시세는 계열유통분과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키로 했다.

본회는 지난 2월23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격조절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이 같은 운영방안을 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종전의 운영방안인 사육부하유통업계가 함께 모여 오리산물의 기준시세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통업계의 의견과 분과별로 각각 정하자는 부화업계의 의견이 엇갈려 장시간 정회까지 가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해당분과 양측의 보완된 안이 합의되어 이를 시행키로 하고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가기로 했다.

[수급안정사업 파란불] 새끼오리 생산판매실적 집계 순항

오리산물의 가격및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화장들의 새끼오리 생산판매실적에 대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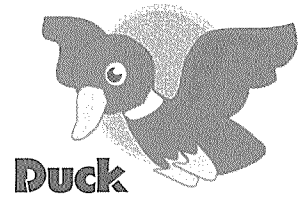
집계가 해당 부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항되고 있다.

본회는 지난 1월 제 2차 이사회에서 오리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해당 부회장들의 새끼오리 생산판매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회분과위원회는 전국 부회장 회의를 소집하여 새끼오리 생산 판매실적을 의무적으로 협회에 보고 키로 협의한바 있다.

또 이를 시행하지 않는 부회장이나 허위보고하는 부회장, 가격안정을 위해 협의한 협회 고시 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부회장에 대해서는 종오리 수입량 배정에서 20%씩 삭감키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마련하고 각 부회장들의 이행각서를 받은바 있다.

지금까지 이행각서에 서명한 부회장은 전체 부회장의 70% 내외이고 생산실적을 보고하는 부회장 역시 70% 내외에 달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부화업계가 보고하는 새끼오리 생산판매량과 배합사료 생산량을 기준으로한 생산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자료가 나오게 되면 수급안정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병행하여 계열유통업체의 생산판매실적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같은 방식의 이행 합의서를 마련하고 이에 서명하는 계열유통업체의 참여 역시 늘어나고 있어 수급안정사업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신입사원채용 업무활성화]

본회는 종오리 개량과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16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나종일(28) 신입사원은 전남대 동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제약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사원으로 협회서는 종오리 도입에서 종오리 개량을 위한 등록 검정사업 및 자조활동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업무를 맡고 있다.